

세월호 추모작품 공모전 수상작 발표

이리남중 최서윤 학생 '숨' 대상 수상... 총 20편 작품 선정

제7주기 세월호 추모 작품 공모전에서 이리남중 최서윤 학생(2년)의 추모시 '숨'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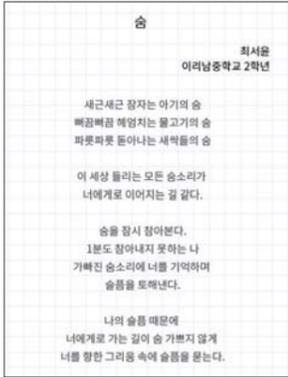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북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세월호 추모 작품 공모전 결과 총 701편이 응모, 예선과 본선을 거쳐 대상 1명·최우수상 2명·우수상 5명·장려상 12명 등 최종 20편을 선정했다.

올해는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아이들의 얼굴'을 주제로 추모 창작시 분야에서만 공모를 진행했다.

대상작 '숨'은 이별 후 그리워하는 마음을 숨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미원 심사위원은 세월호 추모시 '숨' 속에는 여러 '숨'이 등장한다. 존재하는 만물의 숨(생명)을 나열하며, 7년 전 안타깝게 쓰러져간 이들의 숨을 지켜주지 못한 슬픔이 시 속에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단지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읽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수상자들에게는 교육감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오는 16일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리는 '제7주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또 각급 학교 계기교육 자료로 배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분야를 추모시로 단일화하면서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면서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상 최서윤(이리남중 2) ▲최우수상 오예나(김제금성여중 1), 나누리(전주중앙여고 3) ▲우수상 손현수(무주고 3), 송유진(오봉초 3), 이서린(전주서곡중 3), 송대래(전주중앙여고 2), 김하늘(익산고 2) ▲장려상 강예린(간중초 6), 차현진(전북여고 1), 최주영(세인고 3), 김자은(군산여고 2), 김진선(김제여고 2), 김서연(군산여고 2), 박세경(김제여고 2), 전유하(봉서초 2), 이성민(성내초 5), 장준호(상산고 2), 김예람(김제여고 2), 이유정(부안동초 6). /장은성 기자

새만금 잼버리 성공 위한 잼버리 JB 국가대표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제2기 잼버리 JB 국가대표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잼버리 JB 국가대표를 선발·육성한다.

잼버리 JB 국가대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대사로서 스카우트잼버리 국내외 국제 교류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스카우트 활동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6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학교대 또는 지역대 스카우트 활동 대원으로, 모집 인원은 총 130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6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jang90@jbedu.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결과는 4월 27일 발표하며, 제2기 잼버리 JB 국가대표 발대식은 5월 22일에 개최된다.

활동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잼버리 JB 국가대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잼버리 관심도를 높이고 대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지역별 대원들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함께 나눠 유대감, 의사소통능력도 같은 다양한 문화 포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공감토크 온라인 진행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6일 '공감토크 장애인 인권을 말한다'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감토크는 '장애인 고용, 조직문화를 논하다'의 주제로 전북장애인복지관, 전주시 인권담당관, 전북연구원, 근로장애인 등으로 구성, 사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송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권차원에서 바라보는 장애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비장애인과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살면서 겪었던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등 쉽고 공감 가는 토크 형식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공감토크에는 인권 관련 기관·단체·시설 근무자, 장애인 인권

교육 활동강사 뿐 아니라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도민 1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jbwc.re.kr)나 교육사업팀(063-254-3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사회적경제 구현 관광산업 체질개선 산학 공동 협력

전주관광마케팅-전주기전대, 산학협약 체결

전주관광마케팅 주식회사(대표 장유성, 임준희)와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이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다양한 관광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관광활성화, 사회적경제 구현을 통한 관광산업의 체질개선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해 6일 전주기전대학에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계기로, 전주관광마케

팅 주식회사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해의 지역관광 공동사업체의 우수 경영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관광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특히, 관광분야 스타트업 및 1인창업자가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우수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창업 희망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실무에 강한 기전대학의 다양한 계열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신(新)관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애완동물관리학과 협력한 반려동물 여행문화 확산, SNS소프트웨어과 협력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을 통한 SNS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화 하는 등 실무중심의 전주기전대학 계열학과 및 학생, 교수들과 적극협력해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관광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유호성 기자

한글 우수성·아름다움 뽐낸다

흔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 초등생 손글씨 공모전

"전국 초등학생 여러분! 나만의 독특한 손글씨로 글쓰기에 도전하세요!"

흔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이 '제15회 대한민국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을 진행한다. 올해로 열다섯 번째인 손글씨 공모전 '날아가는 지렁이 고사리 공무'로,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 공모전은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초등학생들이 우리의 말과 글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전국 125개 학교(전북 39개교, 전북 외 86개교)에서 1,246명의 학생이 1,320편의 작품을 응모했으며, 14년 동안 4만6천여 편의 작품이 출품됐을 만큼, 손글씨를 콘텐츠로 활용한 초등학생 공모전 중 최고의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소중함을 느꼈던 학생들이 만나지 못한 아쉬움과 의도적인 향한 감사의 글이 많이 응모돼 큰 울림을 줬다.

올해 공모전은 자신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일기가 대상이며, 멋있고 특별한 손글씨를 가졌거나 자신의 손글씨를 뽐내고 싶은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최명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9월 1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북교육감 상을 주는 등 113명의 학생에게 상장과 상품을 선물한다.

특히 수상작품은 손글씨블로그(<https://blog.naver.com/jhbnbul>)와 최명희문학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게재되며, 10월 19일부터 3개월 동안 최명희문학관 마당에서 전시된다.

최명희문학관 전시미 학예사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글을 쓰면서 자신의 글씨에 새겨진 마음을 살피고, 평생 만년필 쓰기를 고집했던 소설가 최명희의 삶과 문학 열정을 느꼈으면 한다."

자세한 사항은 063-284-05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박물관, '목요시네마 뮤즈' 상영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홍찬석)의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네마 산책 '목요시네마 뮤즈'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에 그간 지역민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아 온 목요시네마 뮤즈가 4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지역민을 찾는다.

4월 '시네마 뮤즈 10주년 앵콜 명작 영화'를 시작으로 5월 '코로나시대, 영화로 떠나는 여행', 6월 '오페라의 선율을 따라', 7월 '독립영화', 8월 '싱크로로 100%, 그들의 이야기', 9월 '예술가의 삶, 영화와 함께', 10월 '진짜 이야기의 힘, 다큐멘터리 영화', 11월 '평범함은 가라, 독특한 화면비율 영화', 12월 '영화와 함께하는 힐링 레시피'라는 주제의 영화 상영을 통해 지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회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되며,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영화 상영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홍찬석 관장은 "목요시네마 뮤즈는 지난 10년 동안 지역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다양한 영역의 영화를 통해 문화 예술적 시각을 넓히며 인문학적 감성을 지역민과 나눠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지역민에 위로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요시네마 뮤즈에 대한 문의와 관람 신청은 전북대박물관 학예실(063-270-4088)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